



## 일본 성마리아 병원 연수기(1차)

이 호 숙

(강남성모병원 간호부)



설레임 때문이었을까? 앞으로의 연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을까? 잠을 뒤척인 채 일어나 부랴부랴 공항으로 달려갔다.

공항도착시간 7AM, 서울에서 같이 출발할 나머지 연수생 5명들은 벌써 나와있었다.

우린 소속을 마친 뒤 8시 10분행 비행기에 올라탔다. 부산의 김해공항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는 2명을 무사히 잘 만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하면서....

비행기는 1시간도 되지 않아 우릴 김해공항으로 데려갔다. 거기 면세점에서 우린 아주 쉽게 2명을 만날 수 있었다. 이젠 모두 8명, 더 이상 걱정 없이 우리 8명이 14일의 연수만 잘 마무리 하면 되는 것이었다. 다시 김해에서 후쿠오카, 이는 30분 남짓의 아주 가까운 거리였다.

우린 입국수속을 마친 후 집을 찾아 나가

자마자 우리를 반기는 2명을 만나게 되었다.

1명은 14일 내내 우리의 입과 귀가 되어 줄 이께다 선생님이었고, 1명은 성 마리아 병원 국제 협력부의 유상이었다.

우린 병원버스를 타고 1시간 가량 병원을 향하여갔다. 성 마리아 병원은 후쿠오카에서 한참을 들어가야 있는 시골(?)같은 곳에 위치했다. 우린 병원앞의 우동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병원의 숙소로 들어갔다. 병원은 우리병원 크기정도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예상을 깨고 침상수가 1388개에, 건물수가 10개도 넘는 무지 큰 건물이었다.

우린 마리안 하우스 I에 5명, 마리안 하우스 II에 3명의 실배정을 받고 숙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모두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몇 명은 두통과 소화불량을 경험하기도 했다.

우린 내일부터의 긴 여정을 위해 일찍 짐을 풀고, 잠자리에 들어갔다. 몇몇 선생님들은 벌써부터 일상생활에 일어를 쓰기 시작했다.

다음날, 우린 맨 처음 스케줄로 연락회의에 참석하여 병원의 관계자들에게 인사를 했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이 병원 최고 간호부장인 야마다부장님으로부터 일본의 간호 상황과 성 마리아 병원의 개요에 대한 설명

을 들었다. 우리와 체계도, 생각도 다른 부분이 있었기때문에 우리의 질문도 많았고, 우리나라의 간호상황도 설명하는 약간의 문화의 교류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이계다 선생님은 의학전문용어에 복지정책과 관련된 어려운 통역을 부드럽게 설명하면서 '베테랑'다운 면모를 보여주셨다.

병동에서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근무와 달리, 적응이 되지 않는 앉아서 듣는 강의에 점심, 저녁식사 꿀맛이었다.

저녁식사는 마리안하우스 I 으로 도시락이 배달되었는데, 미애매일 메뉴가 새로웠고 양도 많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다가 먹기도 하였다.

저녁 식사후 우리 백화점구경을 갔다. 특별히 사는건 없어도 낯선 곳에서의 눈요기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셀레이는 일입에 틀림없다.

다음날, 우리는 오전엔 병원의 업무개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후엔 드디어 의자에서 일어나 병원을 견학하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8명의 연수 멤버는 처음으로 보는 일본 병원의 병동에 대한 기대반, 설레임 반으로 사진기를 옆에 챙긴후 안내에 따라 5-2병동(순환기 내과 병동)을 견학하였다. 병동 바닥은 반질반질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고, 미니station, 환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고가의 의료장비의 풍족함은 우리가 근무하는 병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것일까.....

우리는 견학을 마친후 사진촬영의 허락을 받고, 우리병원들과 다른 독특한 부분들의 사진을 찍었다.

수요일아침, 긴장이 풀리면서 잠들이 점점 늘어나 이젠 서로 깨워줘야 아침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오전의 강의는 의료보험 체계가 우리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 게다가 통역을 통하여 얻는 내용이라 내 나름대로의 해석도 개입되었으리라 생각

된다. 오후엔 호스피스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5년전에 강남성모병원의 호스피스를 방문하여 많은 부분을 배우고 왔다는 말에 약간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개인적으로는 다음주에 실습갈 병동이라 열심히 들었다.

시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가 내일은 드디어 교류회(우리의 병원들을 소개하는)가 있는 날이다.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는 쇼핑도 뒤로한 채, 저녁식사 후 마리안 하우스 I에 모여 누가 먼저 할 것인가?, 각각이 준비해온 슬라이드, 비디오, OHP를 어떤 순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순서를 정한후 리허설을 시작했다. 또, 우리중에 일본어를 제일 잘 하는 부천성가 병원의 김재희 선생님께서부터 한 명한명 발음 교정도 받았다. 분량이 많았다 외울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부드럽게 읽기 위한 연습이 한참이었다.

26일 오전엔, 건진센타, 외래, 성마리아 병원에서 유명한 파트의 하나인 신생아 치료실(규모가 어마어마했다), 구급실, 직원을 위한 시설(샤워실, 식당)을 견학하였다.

오후에 드디어 교류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의 각 파트의 간호부장들과 책임 간호사 10명정도 참석한 가운데, 각각의 병원의 소개가 시작되었다. 과연 내가 하는 말의 몇마디가 저분들이 알아들으실까? 계속되는 혼자만의 질문속에 어떤분이 내용을 듣고,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는게 아닌가? 순간 너무 기뻐다.

우리 2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곳의 선생님들도 우리가 일본어로 연습한 것에 대해 놀라시며, 내용도 흡족해 하시는 눈치였다.

휴!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어깨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홀가분한 마음으로 벌써부터 여행을 기다리게 되어싸.

연수팀중 한 명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잠깐 서울을 나와 함께 여행을 할수 없었던 편으로는 섭섭 했지만, 나머지 멤버는

나가사키 여행을 갔다.

버스로 꽤 오래가는 거리였다. 나가사키 원폭 기념관은 원폭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는데, 많은 인명과 재정적인 피해가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얼른 한 바퀴를 돌고 나왔다.

다시 재건하는 성당,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천주교가 들어갔다한다. 그 당시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생생하게 재현해놓았고, 그란바옌은 여기가 일본인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유럽풍 정원에 앞이 탁 트인 외국냄새가 물씬 풍기는 곳이었다.

우리는 여행을 마치고 구루메시로 돌아와 야마다부장, 외래부장, 중환자실부장과 함께 저녁식사를 위해 음식점으로 갔다. 사브 사브를 잘 하는 음식점인데, 뷔페처럼 한번 돈을 지불하면 계속 더 먹을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나중에 도저히 배가 불러 더 이상 들어갈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야마다 부장님은 그곳 종업원들의 눈을 피해서 슬쩍슬쩍 음식들을 비닐봉지에 넣어 뒤로 건네주시며 숙소에 가서 먹으라고 챙겨주셨다.

그것을 보며, 우리나라의 아줌마같은 인간미를 느낄수 있었다.

일요일은 하루종일 비가왔다. 우리는 모처럼의 여유에 늦잠을 잘수 있었다. 하지만 비가 온다고 하루종일 숙소에만 있을순 없었다. 아침을 부지런히 먹고, 도시락을 싣 후 다자이후를 가기로 정했다. 전차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갔는데 이곳은 우리와 교통수단의 비용지불방법도 달랐다. 우린 이께다 선생님께 미리 들은 설명과 약도를 가지고 김재희선생님을 앞 세워 관과을 시작하였다. 다자이후에 도착하였는데 이 날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를 들이는 날이라 하여 가족끼리 4~5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들과 함께 전통의상(기모노)을 입고 많이 나와있었다. 기모노를 입은 아이들이 너무

깜찍해 보여 같이 사진 촬영을 부탁하였고 흔쾌히 응해 주었다. 오오호리 공원은 그곳에서 조금 더 가야했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볼것이 없다며 공원의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까 먹었다. 나중에 나오면서 사람들에게 길을 묻다 안 것인데 우리가 도시락을 까 먹은 곳은 오오호리 공원이 아니라 이름없는 공터였던 것이었다. 우리는 너무 재미있어 한바탕 웃은 뒤 진짜 오오호리 공원으로 갔다. 무지 넓은 호수,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쌓은 푸른잔디, 마음이 탁 트임과 동시에 마음의 평온함이 절로 느껴지는 곳이었다. 잘못하면 오오호리 공원에 대한 잘못된 기억을 심고 올 뻔 했다.

내일 부터는 병동실습, 우린 lab가운과 사전, 그외의 준비물을 챙겨놓고 다시 긴장의 잠을 잤다.

오전에는 각자의 실습부서에서 실습을 한 후 점심시간에 모여 각자의 병동에 대한 얘기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또 이날 우리의 수녀님께서 가정방문 실습을 따라나섰다가 손가락을 부상당해 응급실에서 꿰매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다. 우리 모두는 크게 놀랐지만 불행중 다행으로 수녀님의 손가락은 더 이상 탈없이 가라앉아 주었다.

그날 우리는 오후실습을 마친 뒤 내일 실습부서의 부장님들을 초대하기 위해 장을 보았다.

이젠 이곳에서의 장보기는 한국에서 처럼 아주 익숙해졌고, 우리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았다.

30일, 실습을 조금 일찍 마친 뒤 우린 접대준비를 위해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우리중에 음식에 대해 가장 일가견이 있는 과티마병원의 임성숙선생님을 주축으로 하여 각각의 담당음식을 나누어 신속하게 음식을 만들어갔다. 우리 고유의 음식(잡채, 김치부침개, 각종떡, 각종 김치, 호박죽....)소개하기 위해 음식물의 이름을 일본어로 쉽게 써 놓기도 했다.

예상대로 우리가 준비한 음식들을 너무 좋아하였다. 매운 김치를 좋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고 별로 매워하지도 않는 듯 보였다.

분위기가 처음엔 약간 서먹하였으나, 시간이 가면서 한 테이블에 섞여서 일어, 한국어, 한자, 바디랭귀지를 포함한 의사소통이 시작되었고 말은 잘 통하지 않았지만 느낌은 비슷하게 전달되는 것 같았다.

병동실습을 3일로, 우리의 실습은 이렇게 끝이났고 우리 평가만을 남기게 되었다.

1일, 우리 오전에 서면을 통한 평가의 시간을 가졌고 점심엔 병원에서 준비해주시는 다과상을 접대받으며 우리의 짧고도 긴 연수를 정리하여 수료증을 받았다.

이날 저녁 우리는 온천행을 결정하고 구루메 온천을 향하여 비를 맞으려 갔다. 온천물은 부드럽고 너무 좋았으며 노천온천에는 꽃잎가루가 떠다니기도 했다. 밖에서는 그야말로 비를 맞으며 바깥 세상을 보며 온천을 즐길수 있었다. 이젠 약간 챔피언 예기인데, 우리 8명은 약속이나 한 듯 온천 얘기가 나오자 집에서부터 준비한 때타올을 가져갔던 것이었다.

우리 거기서 그동안 쌓인 여독과 피로를 풀고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우리 처음왔을때처럼 연락회의에 참석하여 그동안 연수를 무사히 마쳤습에 대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신경써 주셨던 분들에게 준비해간 선물을 드렸다. 이젠 일정은 다 끝난 것이다. 그곳의 부장님은 우리의 관광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며, 관광장소의 추천도 해 주시고, 교통편도 알아봐 주셨다. 우리 구마모토성으로 장소를 결정하고 발을 향했다. 후쿠오카성은 성터만 남아있는데에 비해 구마모토성은 성모양이 남아있었으며 크기도 웅장하였다. 성으로 향하는 거리에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 꽃과 나무 호수가 서로 어울어져 있고 우리가 간 날은 운 좋게 행사기간이라 입장

료도 받지 않고 장도 컸었다.

우리는 장에 가서 음식을 사 먹기도 하고 구경도 하면서 토산물을 사기도 했다.

성 안도 구경을 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간 짠 연수팀을 만나기도 했다. 서로 대화가 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너무 반가웠다. 관광을 끝내고 늦은 시간에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다. 이젠 여기서 남은 시간은 하루인데 비가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다.

우리 여론에 의해 마지막 하루를 효율적으로 쓰기위해 2팀으로 나뉘어 관광을 하였다. 한팀은 유휴인으로, 다른 한팀은 후쿠오카의 텐진으로,

서로의 관광이 끝나고 밤에 모여 연수의 끝남을 아쉬워하며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국에 돌아가면 다시 바쁜 일상으로 뛰어들어 이번 연수가 희미해질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부분을 오래 기억하며 필요하다면 배울수 있는 많은 것을 얻어가는 연수가 되었음을 바라면서 다음날 우리 일찍 일어나 올때보다 훨씬 늘어난 짐을 꾸리고 공항으로 향했다.

처음엔 길게만 느껴진 14일이지만 이미 14일이 지나버린 지금, 우리 그동안 경험한 문화의 차이, 생각의 차이, 언어의 차이를 조금 느낀채 연수를 마무리지었다.

우리에게 이런 연수의 기회를 주신 병원과, 가톨릭 병원협회, 그리고 연수기간 내내 우리에게 신경써주셨던 성 마리아 병원의 관계자, 그리고 통역하면서 꼼꼼히 챙겨주시던 이께다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